

나해 부활 제2주일 기초자론편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하느님의 자비 주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000년 파우스티나 성녀를 시성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정하여 지내고 있다.

부활 팔일 축제

그리스도교는 중요한 축일은 여드레 동안 기뻐한다.
따라서 교회는 부활 팔일 축제 동안
매일을 주님 부활 대축일과 같은 날로 여기며 기뻐하는데,
부활 팔일 축제의 마지막 날인 오늘, 부활 제2주일에는
가해, 나해, 다해 동일하게 요한 20,19-31을 읽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요한 20,26)

”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알려주는 것은
부활한 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으로
더 이상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몸, 완성된 몸이라는 것이다.

부활과 참된 평화

“

평화가 너희와 함께!
...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1-22)

”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불러 넣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요한 14,26)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

“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요한 11,16)

... 결코 믿지 못하겠소. (요한 20,25)
”

열정과 의심을 동시에 가지는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모습.

또한 토마스의 모습을 통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며 합리적인 체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28)
”

토마스의 신앙 고백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부활하신 분을 하느님과 동일시하는 유일한 신앙 고백이며,

이 신앙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요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9)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이기에
보고 믿는 이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이들이다.

“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20,31)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하느님께서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요한 5,6)
”

물은 세례를, 피는 성찬례, 곧 새 계약의 피를 의미.

요한이 이러한 말을 한 배경은

당시 초대 교회에는 세례는 받아들이면서도

성찬례에는 참여하기를 거부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요한 5,3)
”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한은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기는 이들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고한다.

한마음 한뜻

“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도 4,32-35)

”

오늘 제1독서인 사도 4,32-35는
모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지내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들이 지녀야 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룰 때,
그곳에서 당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